

#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유형 - 광주시를 중심으로 -

## Coping Styles about Residential Environmental Stress among Apartment Housing Dwellers - Focus on the Gwangju City -

노세희\*  
Noh, Se-Hee

김미희\*\*  
Kim, Mi-Hee

### Abstract

Rapid social change affects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is in turn creates new stimuli to which people have to adapt. These stimuli have been seen to increase stress levels. Therefore, dwellers in these environments try to reduce stress through various metho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1) identify the general trends of coping styles about residential environmental stress, 2) analyze the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ow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buildings affect stress, find out how personal backgrounds affect stress levels and the ability to get rid of environmental-related stress. The subjec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people living in multi-family housing in Gwangju. The city is divided into 5 districts and used quota sampling. 324 housewives were surveyed from the households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December, 2006, after the questionnaire was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preliminary survey. After all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 data was coded and analyzed using the SPSS 12.0 program.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manner in which those in multi-family housing coped with stress. Especially, we need a policy which seriously considers residents who are of low social-economic standing. As well as being exposed to residential environmental stress, they also have no means to deal with it. The age of a building had a strong impact on coping styles about residential environmental stress. We have to make special studies about the adaptive reuse of buildings for the redu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stress and to greatly improve coping styles. In conclusion, i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formation, and economic aid. Reasonable housing management would surely lead to a rise i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the promotion of residential welfare.

Keywords : Coping Styles about Residential Environmental Stress, Housing Adaptation, Housing Adjustment

주요어 : 주거환경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 주거적응, 주거조절

### 1. 서론

인간의 주거가 단순히 잠자리 장소나 물질로서의 건물  
이 아닌 거주자의 마음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라는 거주자의 인식 변화는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교통망, 근린 편의 시설, 공동체, 쾌적성 등  
에 대한 요구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에 주거환경에서 발  
생하는 거주자의 정서적인 불안정, 스트레스 유발 문제들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주거환경의 스트레  
스나 가족의 대처방식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특히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들은 단일 질문을 통해 총체적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  
어 왔다(곽인숙, 1992; 심순희, 1994; 김주현, 1999).

대처(coping)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거나  
초과하는 스트레스원과 긴장을 관리하는 과정으로 가족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기제이며, 이 과정  
에서 사용하는 행동유형을 대처전략이라고 한다(정현숙·  
유계숙, 2001). 이러한 대처과정을 통하여 거주자는 스트  
레스와 긴장을 불러오는 환경조건들을 감소시키고,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현실에 적응하며, 정서적 안  
정을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Fleisman(1984)은 대처를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  
레스적인 상황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인지적·행  
동적 반응”으로 규정하였고, Lazarus와 Folkman(1984)는

\*정회원(주저자),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정교수, 이학박  
사,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이 논문은 2008년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초과하거나 자원에 부담이 된다고 평가되는 특수한 내·외적 요구를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행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라고 하였다.

주거는 가족 구성원에게 그 자체가 물리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가족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주거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대처 행동은 가족 구성원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수준과 가족의 대처 능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는 앞서 발표된 논문<sup>1)</sup>에서 다루어진 주거환경 스트레스 연구와 연속선상에서 거주자가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특성 변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따라서 전편에 다루어진 논문과 조사대상자가 같음을 밝힌다.

이전 논문에서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인(세계보건기구; 김미정·윤정숙, 2000; 김용경 외, 1999)을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으로 구분하여 아파트 거주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 결과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보건성 순으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며,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의 향, 건축경년, 주거 소유형태, 주택의 층, 규모 등임을 밝혔다.

Morris & Winter(1978)에 따르면 주택 소유와 같은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주거결함 및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주거개량에 적극적이고, 그렇지 못한 가정일수록 이주를 통해 가족원의 주거욕구를 성취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았다. 주거결함의 정도는 주거조절행위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한 가정이 이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현 주거에 머물면서 주거개조 및 개량을 선택할 것인지는 주거결함에 대해 그 가정이 느끼는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따라 결정된다.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인지할수록 이주는 개인적 주거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주거결함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거주자는 주거개조 및 개량의 대처를 선택한다(이도영, 1998).

Deane(1990)는 그의 이론에서 주거이동은 개조나 수선과 같은 다른 대안을 통해 거주자가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킬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Speare(1974)의 주거조절이론에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주거조절행위가 적극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즉 가족원의 원활한 주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시설 및 공간의 부족은 주거불만의 정도를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곧 적극적인 주거조절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

가 된다는 것이다(Morris & Winter, 1975; Rossi, 1980). Morris & Winter(1978)는 가족 구성원은 규범의 관점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평가하며, 이상적인 주거 규범과 현실 사이에 주거 결함(housing deficits)을 인지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러한 주거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주거조정(housing adjustment)’이나 ‘주거적응(housing adaptation)’의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처방식은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주거이동, 주거개조와 증축은 ‘주거조정태도’를 나타내고, 규범적 가족 적응, 구조적 가족 적응은 ‘주거적응태도’이다(이경희·윤정숙·홍형욱, 2002).

Priemus(1986)는 한 가정을 의사결정단위로 고려하여 주거현황 이미지(picture of the situation)와 주거요구 이미지(aspiration picture)간의 차이로 발생한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비용과 유용성을 고려하여 주거적응을 실행하게 된다고 하였다(장한두·제해성, 2005).

본 논문에서는 Morris & Winter(1975)의 주거조절이론과 Priemus(1986)의 이론을 사용하여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주거적응과 주거조정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과 거주자의 배경변인이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즉, 거주자는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어떠한 대처방식을 선택하는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예측하여, 거주자가 주거환경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주거적응

주거적응이란 거주자가 자신의 주택을 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족적 가치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느끼는 안정적인 상태, 혹은 이를 위한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Morris & Winter(1978)는 주거적응을 문화적·가족적 규범에 따라서 주택이 적합한지 평가하고 부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주거행동으로 보았으며, Priemus(1986)는 거주자의 주택에 대한 요구와 만족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적응행동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홍형욱(1986)은 주거적응을 큰집으로 이사할 때까지 가족의 크기를 제한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서 필요공간을 얻기 위해 가족을 분산시키는 등의 행동과 주거규범의 기대수준을 낮춰 만족하도록 노력하는 등의 소극적 주거행동이라고 하였다. 주거적응은 규범적 가족적응<sup>2)</sup>과 구조적

2) 규범적 가족 적응은 주거결함에 원인이 있는 주거 불만족에서 오는 긴장을 줄이는데 사용된다. 가족은 주거에 관한 가족 규범을 변경할 수 있고, 낮춰진 규범은 일시적 완화될 수도 있고, 비교적 영구적일 수도 있다. 이는 심각한 가족문제로 발전시키지 않기 위해 취해지는 것으로 규범적 적응에는 표준을 높이는 것도 포함된다.

1) 노세희·김미희(2008),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 스트레스-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3), 1-10

가족적응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공간사용 방식의 변화, 태도 변화 등의 소극적인 주거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거적응의 형태는 근본적으로 가족 수와 가족의 요구가 균형 상태에 있지 않거나, 규범적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설비수준 상태에 있지만 주거이동이나 증·개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주거조절기제이다(홍형욱, 1994).

Seek(1983)는 “주택개량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경제적 신분이 높은 계층이 갖는 특권이다”라고 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보았고, Lodi & Combs(1989)에 의하면 연령, 직업, 수입, 교육수준은 주거조절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가족일수록 적극적으로 개조행위에 임하는 한편, 농업에 종사하는 집단과 교육수준이 낮은 가족은 개조에 소극적임을 발견하였다(신동규·김미섭, 2003).

주택의 융통성이 크고 규모가 넓을수록, 아파트 보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주거이동보다 주거개선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며, 부분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용변경을 선택할 확률도 높고, 개선보다는 기존의 주거환경을 고수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 자생적인 재생이 개인수준에서 가능하고, 시기적으로 제한받지 않으며 적용기술과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경제적인 반면, 아파트는 요구변화에 대하여 자생적 재생이 어려워 주거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장한두·제혜성, 2005). 주택개조는 주택의 규모가 클수록 많이 이루어지고, 가족공용공간, 서비스 공간의 개조가 많이 이루어진다(홍선경·윤복자, 1995). 최신애 외(2005)의 연구에서도 주택의 크기가 큰 가구가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거적응은 거주자가 주거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비교적 소극적인 대처행동으로 무관심·비적응에 해당하는 ‘참고 산다’와 ‘구조적 가족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 1) 무관심·비적응: ‘참고 산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모든 행동이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조차도 당면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한 방법일 수 있다. Priemus(1986)는 적응태도(애착, 항의, 무관심), 적응행동(사용변화, 환경개선, 이주), 태도변화(적응행동이 불가능할 경우 주거욕구를 낮추어 스트레스를 낮추는 과정) 모두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으로서 연계과정으로 주거적응을 설명하였다. 욕구를 조정하지 않으면서 실행이나 항의도 없는 단계로 무관심·비적응을 설명하고 있다.

#### 2) 구조적 가족 적응

구조적 가족 적응은 구성적 적응과 조직적 적응의 두 종류가 있다 이들은 이사, 개조, 규범적 적응보다 더 근

본적인 것이다. 전자는 가족의 분가, 합가, 출산지연, 출산기대 등 현 주거의 수준에 맞도록 가족구성을 변경하는 구성적 적응이다. 즉 가족 구성을 변화시켜서 적응하는 것으로 집이 좁아서 분가를 시킨다든가, 방이 하나 더 생길 때까지 아이 출산을 보류한다든가, 방이 하나 더 필요해서 군입대를 지원하는 등의 부정적 주거결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고, 집이 너무 커서 합가를 한다든가, 자녀를 더 출산한다든가, 일부 세를 주어 소득을 올리는 방법 등의 긍정적 주거결함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포함된다(홍형욱, 1994).

조직적 가족 적응은 그 합축의 의미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서 가족 내 상호작용 양상, 권력 구조의 변경, 역할관계의 변경 등을 의미한다. 홍형욱(1994)은 조직적 적응을 공간규모나 조직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방 바꾸기를 함으로써 가족 내 역할 구조의 변화가 전제되거나 야기될 수 있는 적응형태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형태는 가족이 그대로이고 재조직이 어렵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부담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2. 주거조정

Rossi(1980)에 따르면 주거조정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 주거상황에 대한 변화의 인식이고, 둘째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 이주 또는 주거 개량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의 모색이고, 셋째는 고려된 대안을 중심으로 한 최종안의 선택이다.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가족은 새로운 환경을 찾아 이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주거에서 개조·리모델링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완화시킬 것인지 복잡한 결정과정을 통해 결정한다(이도영, 1998). 현재의 주택이 가족의 문화 및 규범에 미치지 못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이러한 스트레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주거이동이나 주택개조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조절한다. 제약이 크지 않을 때는 주거이동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거이동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개조를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주거조정은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식으로 주거이동과 개조 및 리모델링으로 구분하였다.

#### 1) 주거 이동

주거이동은 동일한 노동시장과 주거시장 내에서 거주지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후, 선호, 경제적 기회와 같은 비주거적 요인에 의해 동기화되는 이주와는 구별되며, 전적으로 주거 관련 요인과 관계가 깊다. 직장이동, 직업탐색 등과 같은 직업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장거리 이주와 개념적으로 다르다.

가족은 주거이동을 통해 주거시설수준을 향상시키고, 주택규모와 침실수를 늘리며, 자가 소유권을 획득하고, 원하는 근린환경과 주거유형에 거주하게 됨으로서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을 낮춘다. 이렇게 주거이동으로 가족의 주

거수준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일부 가족은 비슷한 특성을 지닌 주택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더 열악한 상황으로 이동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 2) 개조 및 리모델링

주거조절행위로서 개조 및 리모델링은 개념상의 문제와 측정상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개선(improvement)과 일상적인 유지관리(regular maintenance)를 구별하는 것과 특정한 행동의 발생예측보다는 오히려 지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평가하는 것이 개조를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Morris & Winter는 유지관리와 주택개조를 구분할 때 방의 수나 공간 크기의 변화와 주택 질의 개선현상으로 구분하고, 정규적인 수선과 유지관리는 주택개조와 증축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전형적으로 주택개조는 공간과 질에서의 규범적인 주거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생해지는 것으로서 개축, 욕실이나 부엌시설 개선, 증축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반면에 일상적인 유지관리행동에는 페인트칠하기, 덧문수리나 교체, 지붕수리, 어떠한 주요시스템, 즉, 난방과 배관, 전기 등과 같은 주요시스템의 수리와 교체 등이 속하는데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조는 주거이동과 대체관계에 있다. 주거조절 방법으로 주거이동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한 후, 주거이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주택개조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매한 기존 주택이나 심지어 신규주택에 입주하기에 앞서 개조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가족원이 늘어나거나 연령이 높아져 침실 수 등의 주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예측하고 미리 큰 주택으로 이사 가서 후에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이경희 · 윤정숙 · 홍형욱, 2002).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의 표집 및 자료수집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라는 두 가지 논제 중 기 발표된 논문인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 스트레스”(노세희·김미희, 2008)에서는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중심으로 논문이 진행되었다면, 이 연구는 아파트 거주자가 다양한 주거환경 요인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어떠한 대처방식 유형을 선택하는지, 이러한 대처방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계획되었다. 따라서 기 발표된 논문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논제 파악하기 위해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응답 자료를 별도로 자료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광주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여 분석되었다. 광주시를 대표하는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광주시를 구단위의 행정구역에 따라 다섯층으로 층화시킨 후, 각 구에 분포한 아파트 단지 수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당표집<sup>3)</sup> 하였다.

2007년 1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광주광역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400명에게 실시하고, 회수된 362부 중 부실응답 설문을 제외하여 총 324부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기술하고 주거환경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SPSS 14.0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배경 특성 변인과 거주자가 주거환경에서 인지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그들의 대처방식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조사도구

#### 1)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거주자 대처방식

대처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Morris & Winter(1978), Priemus(1986), 광인숙(1992)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주거환경 구성요소인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의 큰 4개 범주를 기준으로 각각 세부 항목을 분류하고 세부항목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유형의 대처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질문하였다.

안전성의 하위항목은 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교통사고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이며, 보건성은 공해와 위생, 편리성은 복리시설, 교육시설, 주거공간, 유지관리, 이동에 관한 스트레스, 쾌적성은 이웃친밀, 개방성, 조정시설, 심미성 스트레스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은 총 4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참고 산다” 즉,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소에 대하여 기대를 낮추어 견디거나 참고 사용하는 태도와 “구조적 변경”이라는 분가, 합가, 출산지연, 출산기대 등 가족 구성을 변경하는 구성적 적응태도, 이사를 가지 않고 현재의 집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거조정으로서 리모델링 및 개조, 이사의 4개의 범주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중 “참고 산다”와 “구조적 변경”은 주거적응태도, “리모델링 및 개조”, “이사”는 주거조절태도로 구분되며, 주거조절태도가 주거적응태도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방식 유형이다.

3) 광주광역시 주거유형 중 아파트의 총세대수는 287,466(2006. 12 기준; www.gwangju.go.kr)이며, 동구는 총창로와 금남로 등 상업지역이 밀집된 지역으로 아파트 세대수 전체의 3.51%에 해당하는 10,078세대가 거주한다. 따라서 할당표집에 의해 총 표집수 400개 중 동구 14, 서구 96, 남구 50, 북구 135, 광산구 105개를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4.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의 비율이 54.8%로 더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소득은 381~650만원이 37.7%, 271~380만원이 2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6년 4/4분기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도시가계 평균소득 316만 8천 원에 비해 본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소득은 392만 7천 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116명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하고,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은 각각 104명으로 32.1%를 차지하는 반면, 배우자 연령은 50대 이상이 158명으로 48.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는 17.3%, 40대는 34.0%의 분포를 보인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f(%)	변인	구분	f(%)	
취업여부	미취업	168( 51.9)	가족생활주기	독립기	18( 5.6)	
	취업	156( 48.1)		가족형성기	58( 17.9)	
	합계	324(100.0)		자녀교육기	100( 30.9)	
				자녀성년기	85( 26.2)	
소득수준*	270만원 이하	80( 24.7)	노년기	자녀결혼기	32( 9.9)	
	271~380만원	90( 27.8)		노년기	31( 9.6)	
	381~650만원	122( 37.7)		동거가족수	1명	20( 6.2)
	651만원 이상	32( 9.9)			2명	47( 14.5)
	평균	3,927,000			3~4명	209( 64.5)
본인연령	30대 이하	104( 32.1)	5명이상	48( 14.9)		
	40대	116( 35.8)	평균	3.52명		
	50대 이상	104( 32.1)	배우자 연령*	30대 이하	56( 17.3)	
	합계	324(100.0)		40대	110( 34.0)	
평균	45.13세	50대 이상		158( 48.8)		
본인학력	중졸 이하	30( 9.2)		합계	294(100.0)	
	고졸	128( 39.5)	평균	48.33세		
	전문대졸	51( 15.7)	배우자 학력*	중졸 이하	7( 2.4)	
	4년대졸	90( 27.8)		고졸	61( 20.7)	
	대학원 이상	25( 7.7)		전문대졸	39( 13.3)	
	합계	324(100.0)		4년대졸	147( 50.0)	
			대학원 이상	40( 13.6)		
			합계	294(100.0)		

\*표시된 항목의 퍼센트는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퍼센트임  
 \*2006년 4/4분기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도시 가계 소득(평균소득: 316만 8천원)의 분위별 평균 월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재구성

2) 조사대상자 주택의 물리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호의 배치, 소유형태, 주택규모, 거주기간, 건축경년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조사대상 아파트의 87.7%가 계단식 배치 형태였으며, 86.7%가 자가 소유로 나타났다. 주택의 규모는 평균 32.93평이었고, 건축경년은 평균 10.01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조사대상자 주택의 물리적 특성 (N=324)

변인	구분	f(%)	변인	구분	f(%)
주호 배치	계단식	284( 87.7)	주택 소유	자가	281( 86.7)
	복도식	40( 12.3)		임대	43( 13.3)
주택규모**	27평 미만	80( 24.7)	건축경년	6년 이하	81( 25.0)
	27~35평	171( 52.8)		6~10년	109( 33.6)
	35평 초과	73(22.5)		10~14년	59( 18.2)
				14년 이상	79( 23.1)
평균	32.93평	평균	10.01년		

\*한국토지공사(1993)의 “지역 특성별 인구 및 주택계획지표 연구”에 준함.  
 \*\*대한주택공사(http://www.jugong.co.kr) 공공분양주택 및 민영주택 전용면적 기준(현행 주택건설및공급에관한기준을 비롯한 주택관련 제도)에 의거하여 전용면적 60 m<sup>2</sup> 미만(분양면적 27평 미만)은 소형, 60~85 m<sup>2</sup> (27~35평)은 중형, 85 m<sup>2</sup> 초과(35평 초과)는 대형 아파트로 분류함.

III. 연구 결과 및 분석

1. 주거환경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일반적 경향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아파트 거주자가 취하는 태도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거주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참고 산다/가족 구성 변경/리모델링·개조/이사의 대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참고 산다(무행동)’와 ‘구조적 변경’은 주거적응태도, ‘리모델링·개조’와 ‘이사’는 주거조정태도로 분류하였다.

범죄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 응답자의 47.2%, 안전사고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는 46.6%, 자연재해에 대한 스트레스는 75.9%가 각각 주거조정태도인 ‘이사’를 선택하였다. 교통사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는 ‘참고 산다’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사’ 또한 42.6%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안전성에 관한 스트레스에서는 주거조정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안전성에서의 결함은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공해에 대한 대처방식에서 응답자의 59.3%가 ‘이사’를 선택하였고, ‘참고 산다’고 대답한 사람은 31.8%로 조사되었다. ‘위생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이사’를 선택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54.6%를 차지하였고, ‘참고 산다’와 ‘리모델링·개조’는 각각 22.8%와 21.9%로 나타났다. 보건성 스트레스는 개인의 생리적 건강 유지와 환경 위생을 위한 조건으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거주자의 건강과 보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어나 리모델링/개조와 같은 주거조정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시설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 59%가 ‘참고 산다’고 한 것과 다르게, 교육시설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는 66.4%가 ‘이사를 한다’고 하여 교육시설 스트레스는 이사의 원인이 됨을 짐작할 수 있다.

주거공간의 결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57.7%가 ‘리모델링/개조’를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리모델링과 개조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새로

표 3. 아파트 거주자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유형의 일반적 경향

(N=324)

	대처원인 및 내용	대처방식 유형				
		주거적응태도		주거조정태도		
		참고산다 f(%)	구조적 변경 f(%)	리모델링 f(%)	이사 f(%)	
범죄	현재 주택이 범죄에 대한 심리적·육체적 안전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느낄 경우	103(31.8)	11( 3.4)	57(17.6)	153(47.2)	
안전성	안전사고	주택의 내부구조, 노후화, 시공 상태 등으로 주거 내부공간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느낄 때	58(17.9)	8( 2.5)	107(33.0)	151(46.6)
	자연재해	수해나 건물 붕괴 등 자연 재해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45(13.9)	6( 1.9)	27( 8.3)	246(75.9)
	교통사고	보도, 자전거 도로, 차로 등을 이용할 때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을 느낄 경우	151(46.6)	8( 2.5)	27( 8.3)	138(42.6)
보건성	공해	물대기오염, 소음 등 공해에 노출되어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103(31.8)	3( 0.9)	26( 8.0)	192(59.3)
	위생	일조, 채광, 환기, 통풍,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상태 등 주거환경이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74(22.8)	2( 0.6)	71(21.9)	177(54.6)
편리성	복리시설	문화의료공공시설 이용 불편이나 주차공간의 부족 등 생활 관련 시설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낄 때	191(59.0)	9( 2.8)	27( 8.3)	97(29.9)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주변의 환경이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될 경우	47(14.5)	47(14.5)	15( 4.6)	215(66.4)
	주거공간	주거내부 공간(규모, 실의 크기와 배치, 수납공간, 작업대 배치 등)의 결함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경우	92(28.4)	9( 2.8)	187(57.7)	36(11.1)
	유지관리	주택의 유지관리비, 가격, 투자가치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139(42.9)	11( 3.4)	38(11.7)	136(42.0)
	이동	주택으로의 출입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때	201(62.0)	4( 1.2)	28( 8.6)	91(28.1)
쾌적성	이웃친밀	이웃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교제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227(70.1)	8( 2.5)	24( 7.4)	65(20.1)
	개방성	주택의 조망이나 전망이 나쁘고, 외부에서 집안이 들여다보이는 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느낄 때	79(24.4)	2( 0.6)	131(40.4)	112(34.6)
	조경시설	주변에 근린공원이나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놀이터, 휴게공간 등이 결여되어 있을 때	226(69.8)	7( 2.2)	33(10.2)	58(17.9)
	심미성	주택 외관이나 색상, 내부마감 등이 심미적으로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경우	165(50.9)	-	118(36.4)	37(11.4)

운 환경으로 이사보다는 기존 환경에서 사는 것이 경제적·심리적 적응 부담이 작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8.4%가 ‘참고 산다’고 응답하여 주거공간에서의 불편과 스트레스를 상당부분 참고 견디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이나 스트레스는 잠시 참는다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과정부터 거주자의 주거욕구에 대응하는 디자인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택의 유지관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42.9%는 ‘참고 산다’를, 42.0%는 ‘이사’를 선택하였으며, ‘주택으로 출입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낄 때’는 62.0%가 ‘참고 산다’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거주자의 소득이나 경제력의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취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웃친밀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70.1%가 ‘참고 산다’라고 응답하였고, ‘주택의 조망·전망이 나쁘고 외부에서 집안이 들여다보이는 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경우’에는 40.4%가 ‘리모델링/개조’를 선택하였다.

이는 시각적 프라이버시 침해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간단한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조경시설’과 ‘심미성’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참고 산다’를 선택하여 주거욕구의 상위단계인 쾌적성에 대한 스트레스는 소극적인 대처인 주거적응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중 분가나 합가, 출산지연 등 가족 구성원을 변경하는 대처방식 유형인 주거적응으로서 구조적 변경을 선택하는 사람

은 미미했으나, 교육시설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대처방식으로 구조적 변경을 선택한 경우는 14.5%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해당 자녀만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배경변인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거주자 대처방식 유형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참고 산다’, ‘구조적 적응’, ‘개조 및 리모델링’, ‘이사’의 4개의 범주를 구성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나 분석을 위해 ‘참고 산다’와 ‘구조적 적응’은 소극적 태도인 ‘주거적응’으로, ‘개조 및 리모델링’과 ‘이사’는 적극적 대처인 ‘주거조정’으로 구분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거주자가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유형을 선택할 때, 주거적응태도 집단과 주거조정태도 집단으로 판별하는데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up>4)</sup>

범죄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교차검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주부의 취업 여부, 종교, 주부연령, 남편연령<sup>5)</sup>, 가족생활주기, 주부학력, 월소득, 남편직업<sup>6)</sup>,

4) 교통사고, 복리시설, 유지관리, 이동, 이웃친밀, 개방성, 심미성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델에 대한 적합성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5) 주부연령과 남편연령, 가족생활주기는 상관분석 결과 상관이 높게 나타나 세 변인 중 ‘남편연령’ 변인만 사용함.

6) 직업 관련 변인은 회귀식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분석에서 제외함.

표 4. 주거환경 스트레스 대처방식 구분 로지스틱 회귀분석

범주	변인	B	S.E.	Wald	Sig.	Exp(B)	로지스틱 회귀모형 적합성 검정
범 죄	주부취업여부	-0.051	0.315	0.027	0.871	0.950	Concordant <sup>7)</sup> 69.4% -2 Log likelihood <sup>8)</sup> 339.056 Model $\chi^2$ <sup>9)</sup> 37.926(df=7, sig=.000) Nagelkerke R <sup>2</sup> .121 Hosmer & Lemeshow $\chi^2$ <sup>10)</sup> 6.949(df=8, sig=.542)
	종교유무	0.713	0.269	7.049	0.008	2.041	
	남편연령	-0.063	0.017	13.449	0.000	0.939	
	월소득 수준	0.001	0.001	1.930	0.165	1.001	
	주부학력	0.018	0.138	0.017	0.898	1.018	
	건축경년	-0.003	0.002	1.717	0.190	0.997	
	범죄에 대한 스트레스	-0.053	0.152	0.124	0.725	0.948	
	상수	3.361	1.240	7.344	0.007	28.827	
안 전 사 고	동거 가족수	0.344	0.277	1.547	0.214	1.410	Concordant 81.6% -2 Log likelihood 269.657 Model $\chi^2$ 27.874(df=5, sig=.000) Nagelkerke R <sup>2</sup> .090 Hosmer & Lemeshow $\chi^2$ 3.007(df=8, sig=.934)
	남편연령	-0.052	0.018	8.191	0.004	0.950	
	주부학력	0.194	0.162	1.437	0.231	1.214	
	건축경년	-0.004	0.003	2.308	0.129	0.996	
	안전사고 스트레스	-0.156	0.200	0.609	0.435	0.856	
상수	3.714	1.560	5.670	0.017	41.015		
자 연 재 해	주부 취업여부	-0.035	0.452	0.006	0.938	0.965	Concordant 84.7% -2 Log likelihood 212.654 Model $\chi^2$ 42.395(df=8, sig=.000) Nagelkerke R <sup>2</sup> .134 Hosmer & Lemeshow $\chi^2$ 4.356(df=8, sig=.824)
	남편연령	-0.102	0.023	19.581	0.000	0.903	
	주부학력	-0.004	0.220	0.000	0.985	0.996	
	남편학력	0.060	0.194	0.096	0.756	1.062	
	월소득 수준	0.000	0.001	0.030	0.863	1.000	
	주택의 규모	0.081	0.033	6.182	0.013	1.084	
	건축경년	0.000	0.003	0.009	0.923	1.000	
	자연재해 스트레스	-0.291	0.218	1.779	0.182	0.748	
상수	4.771	1.733	7.579	0.006	118.014		
공 해	남편연령	-0.317	0.205	2.394	0.122	0.728	Concordant 66.7% -2 Log likelihood 357.495 Model $\chi^2$ 15.374(df=5, sig=.009) Nagelkerke R <sup>2</sup> .051 Hosmer & Lemeshow $\chi^2$ 6.108(df=8, sig=.635)
	주부학력	0.207	0.329	0.398	0.528	1.230	
	남편학력	0.319	0.332	0.926	0.336	1.376	
	건축경년	-0.005	0.002	4.520	0.033	0.995	
	공해에 대한 스트레스	0.096	0.151	0.404	0.525	1.101	
상수	1.392	0.778	3.200	0.074	4.024		
위 생	남편학력	0.749	0.306	5.982	0.014	2.116	Concordant 76.5% -2 Log likelihood 311.134 Model $\chi^2$ 9.259(df=3, sig=.026) Nagelkerke R <sup>2</sup> .031 Hosmer & Lemeshow $\chi^2$ 3.855(df=8, sig=.870)
	종교유무	0.422	0.283	2.223	0.136	1.525	
	위생에 대한 스트레스	-0.110	0.181	0.371	0.542	0.895	
	상수	0.673	0.582	1.334	0.248	1.959	
교 육 시 설	남편연령	-0.500	0.220	5.158	0.023	0.607	Concordant 71.4% -2 Log likelihood 338.244 Model $\chi^2$ 13.583(df=3, sig=.004) Nagelkerke R <sup>2</sup> .045 Hosmer & Lemeshow $\chi^2$ 6.082(df=8, sig=.638)
	주부학력	0.282	0.311	0.820	0.365	1.325	
	교육시설 스트레스	0.146	0.141	1.065	0.302	1.157	
	상수	1.563	0.734	4.534	0.033	4.773	
주 거 공 간	주부연령	-0.133	0.179	0.556	0.456	0.875	Concordant 68.8% -2 Log likelihood 387.362 Model $\chi^2$ 14.707(df=4, sig=.005) Nagelkerke R <sup>2</sup> .044 Hosmer & Lemeshow $\chi^2$ 4.092(df=8, sig=.849)
	주부학력	0.801	0.287	7.786	0.005	2.228	
	건축경년	0.002	0.002	1.271	0.260	1.002	
	주거공간 스트레스	0.016	0.156	0.011	0.917	1.016	
	상수	0.346	0.638	0.294	0.588	1.414	
조 경 시 설	주부학력	-0.023	0.130	0.031	0.860	0.977	Concordant 71.9% -2 Log likelihood 375.893 Model $\chi^2$ 8.868(df=3, sig=.031) Nagelkerke R <sup>2</sup> .027 Hosmer & Lemeshow $\chi^2$ 10.652(df=8, sig=.222)
	가족생활주기	-0.369	0.146	6.335	0.012	0.692	
	조경시설 스트레스	0.032	0.132	0.060	0.806	1.033	
	상수	-0.104	0.777	0.018	0.894	0.901	

대처방식 - 0: 주거적응태도, 1: 주거조정태도 // 주부취업여부 - 0: 미취업 주부, 1: 취업주부 // 종교유무 - 0: 없음, 1: 있음  
가족생활주기 - 0: 독립기/가족형성기/자녀교육기, 1: 자녀성년기/자녀결혼기/노년기

7) 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대한 분류의 정확도

8) 일반적으로 Log likelihood의 절대값이 감소할수록 그 모형의 적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Log likelihood의 절대값은 감소하게 되므로 Log likelihood의 절대값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보다 더 적합한 모형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나의 예측변수가 모형에 더해졌을 때 얻어지는 Log likelihood값의 절대값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큰 값이 나타나는가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포함관계에 있는 두 모형에서 척도편차가 카이제곱의 분포를 따른다는 발견에 기초한다.

9) Model  $\chi^2$ 값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로 이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인 배경특성 변인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 변인들은 종속변수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는 모델로 회귀식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10) Hosmer & Lemeshow  $\chi^2$ 값은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는 값으로 유의확률(.542> $\alpha$ =.05)보다 크기 때문에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건축경년 변인과 범죄에 대한 스트레스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주거조정태도'를 갖는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약 2배정도 높으며,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조정태도'보다 '주거적응태도'를 보이는 집단일 가능성이 약 0.9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회귀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진입된 변수는 남편연령, 주부학력, 동거가족원 수, 건축경년, 안전사고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으로 이중 '남편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귀모형은 주부의 취업여부, 남편연령, 주부학력, 남편학력, 월소득, 주택규모, 건축경년, 자연재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남편연령이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방식인 '주거적응'을 취할 가능성이 약 0.9배 증가하였고,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주거적응'보다 적극적 대처인 '주거조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약 1.0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해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남편연령, 주부학력, 남편학력, 건축경년, 공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건축경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경년이 오래된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적극적 대처보다 '주거적응태도'를 취할 확률이 약 0.99배 증가하였다.

위생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종교유무와 남편학력, 그리고 위생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남편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인 '주거조정'을 선택하며, '주거적응'보다 '주거조정'을 하는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약 2.1배 증가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회귀식을 위해 진입된 독립변수는 남편연령, 주부학력, 교육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며, 그 결과 남편연령이 많아질수록 거주자들을 '참고살기/가족의 구조적 변경'과 같은 '주거적응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주거조정행동'을 할 확률보다 약 0.6배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남편의 연령이 높은 집단은 가족생활주기 중 자녀성년기나 결혼기 혹은 노년기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시설에 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주로 소극적인 대처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공간에 대한 편리성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주부연령과 주부학력, 건축경년, 주거공간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부학력'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주거적응'보다 '주거조정'을 취할 확률이 약 2.23배 높게 나타난다.

조경시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회귀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주부학력과 가족생활주기, 조경시설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생활주

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의 후기단계에 해당하는 가족의 경우에 조경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주거조정태도보다 소극적 대처인 주거적응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약 0.7배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거주자의 배경특성 변인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관련 변인보다 배경특성 변인 중 남편관련 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교육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남편의 연령이 높은 집단은 소극적 대처태도인 주거적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주택은 경제적·사회적·정서적 모든 측면에서 가족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 사나 리모델링/개조와 같은 행동은 가장인 남편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주부 관련 변수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조경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가족생활주기의 후기단계에 해당하는 가족은 가장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소득과 권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더 만족한 주택에 살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남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고살기나 가족의 구조적 적응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인 주거적응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공간과 배치에 만족할 뿐 아니라 주택이란 가족을 위한 가장 안전한 공간이므로 가족의 생활개선을 위해 유일한 안전수단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라 예측했으나 분석 결과에서는 주거환경 스트레스가 대처방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대처행동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조사가 아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하위항목에 대해 거주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검정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며, 실제로 희망하는 대처방식은 주거조정행동이지만 현실적으로 주거적응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요약하면 첫째, 거주자의 대처유형을 주거적응과 주거조정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결과, 인간의 생존적 요소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보건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거주자는 주로 리모델링이나 개조, 이사와 같은 적극적 대처방식인 '주거조정' 태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욕구에 해당하는 편리성이나 쾌적



성 요소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처에 해당하는 '주거적응'의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차분석을 통해 배경특성 변인에 따른 거주자 대처방식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대처방식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거환경 스트레스 관련 변인보다 거주자 배경특성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교육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남편의 연령이 높은 집단은 소극적 대처인 주거적응태도를 보였으며, 주거 공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은 주부의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경시설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가족생활주기의 후기 단계에 있는 가족일수록 소극적 대처인 주거적응태도를 보였으며, 공해에 대한 대처방식에서 건축경년이 오래된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주거적응태도를 보였다. 위생에 대한 대처방식에는 남편의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대처인 주거조정태도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시설이나 이동, 이웃친밀, 조경시설, 심미적 쾌적성 스트레스에 대한 거주자의 대처방식으로 '참고 산다'의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위 단계의 주거욕구들이 상당부분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대처방식에 차이를 보인 변인들이 연령, 학력, 가족생활주기, 월소득 등인 것으로 통해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은 주거환경의 자극적인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들 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보조와 배려, 주거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지역적 표집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광범위한 지역 표집으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의 대상을 거주자 중 주부로 한정하였으나, 가족 구성원 각각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와 욕구가 다를 것이며, 그에 따라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수준과 대처방안도 다를 것이므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폭넓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조사가 아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모든 하위항목에 대해 거주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거주자가 희망하는 대

처방식은 주거조정행동이지만 현실적으로 주거적응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주거생활에서 거주자의 대처태도가 결국 실제 대처행동을 유발시킨다고 할 때, 거주자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취하는 대처행동에 대해 잠재적인 영향력을 설명하여 미래의 대처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거주자 복지 증진과 바람직한 주거환경 계획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거주자의 대처행동의 세부적인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인지 단순히 주택의 물리적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반상회와 같은 주민자치조직 내 참여를 통해 스트레스 원인을 해소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응용된 이론과 같이 리모델링이나 이주, 참고살기 및 구조적 적응 이외에도 거주자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과 행동유형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주자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안락과 안녕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는 자극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는 주거 공간 디자인 개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 혹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처방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강병서 외(2005), 한글 SPSS 12K 사회과학 통계분석, SPSS 아카데미.
2. 박인숙(1992), 주거환경 스트레스가 주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 김주현(1999), 초고층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 노세희·김미희(2008),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 스트레스 -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3, 1-10.
5. 신동규·김미섭(2003), 주거공간 개조행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중부지방 소도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4), 67-74.
6. 심순희(1994), 초고층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건강,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7. 이경희·윤정숙·홍형욱(2002), 주거학개설, 문운당.
8. 이도영(1998), 한인이민가정의 주거조절·가설검증을 통한 이론적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0), 11-18.
9. 장한두·제해성(2005), 아파트 주민의 주거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중소규모 단위세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53-362.
10.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신정.
11. 최신애·김태현·고덕균·김홍규(2005), 주택재개발 세입

- 자들의 이주결정형태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11), 235-242.
12. 홍선경·윤복자(1995), 아파트 거주자의 주택개조 특성 분석 모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1), 3-14.
13. Lodl, K. & Combs, E. (1989), Housing Adjustments of Rural Households: Decisions and Consequences, *Housing and Society*, Vol. 16, No. 3, 13-22.
14. Morris, E.W. & Winter, M. (1975), A Theory of Family Housing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7, No. 1, 79-88.
15. Morris, E.W. & Winter, M. (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Y.: John Wiley and Sons.
16. Priemus, H. (1986), Housing as a social adaptation process: a conceptual scheme,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18, No. 1, 31-52.
17. Rossi & Peter (1980), *Why Families Move*, 2nd (Eds), Sage Publications, Beverly Hills.
18. Speare (1974), Residential Satisfaction as an Intervening Variable in Residential Mobility, *Demography*, Vol. 11, No. 2, 173-188.
19. Seek, N. H. (1983), Adjusting Housing Consumption: Improve or Move, *Urban Studies*.
- 

접수일(2009. 3. 27)

수정일(1차: 2009. 7. 17, 2차: 10. 30)

게재확정일자(2009. 11. 4)